



“할머니·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지난달 30일 광주시 동구 광주 YMCA 어린이 스포츠단 원생들이 추석맞이 예절교육 시간에 양증맞은 몸짓으로 “할머니·할아버지 건강하세요”를 외치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고향으로... 고향으로...

서울→광주 7시간 예상

추석 연휴(2일~4일)를 하루 앞둔 1일, 2천600만명의 민족 대이동이 본격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는 1일과 2일 가장 많은 귀성차량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올 추석연휴는 사흘에 그쳐 교통체증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2천56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340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은 약 80만 명의 귀성객이 고속도로를 통해 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은 약 80만 명의 귀성객이 고속도로를 통해 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과 2일 광주·동광주·동광산·전주·순천·목포 등 호남지역 주요 5곳 영업소를 통과할 예상 귀성 차량은 44만9천대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광주 귀성은 최대 7시간이, 광주→서울 귀성은 6시간4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귀성 소요시간의 경우 지난해 추석과 비슷하다. 다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는 승용차보다 1~2시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귀성길은 1일 오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지·정체 예상구간은 익산~서전주 구간(20.4km)이다. 예상 시간대는 오후 3시~10시까지다.

국토해양부는 추석 연휴 교통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속버스 하루 평균 운행횟수를 500회 늘리는 등 하루 평균 7천여 차례 운행하기로 했다.

철도는 객차 수를 318량, 여객선은 1천175회, 국내선 항공기는 39회씩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체 구간에 임시화장실 94개소 1천75칸을 설치하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휴게소 40곳)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0조 大邱쇼크’ 지역리더들 정신차려라

산단·침복단지 등 국책사업 속속 유치 정권 10년 광주·전남 허송세월과 대조

새정부 들어 대구·경북 등 영남 지역이 대형 국책사업을 잇따라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있는 데 반해 호남 지역은 크게 부진해 지자체·정치권·지역 시민사회 등 지역 역량의 결집이 절실하다.

특히 호남 지역에 우호적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에 조차 지자체, 정치권의 공조실종으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잃은 데다 새정부에서도 이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어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광주·전남 공동산단인 합평 ‘빛그린 산업단지’, 대구 사이언스 파크, 경북·포항 블루벨리, 구미 하이테크 벨리 등 4개 국가산단을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공동산단의 경우 조성면적 408만2천㎡, 총사업비 5천679억원으로, 대구 사이언스 파크의 사업부지 825만㎡와 총사업비 1조 6천698억원에 비해 규모·예산에서 절반에도 못미친다. 포항 블루벨리는 2013년 말까지 8천억원, 구미 하이테크 벨리는 2014년 말까지 1조 8천억원이 투자된다.

대구·경북권은 이 사업으로 생산유발 효과 34조원, 부가가치 10조원, 임금유발 4조원 등 무려 50조에 달하는 직·간접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그동안 지자체·정치권 등의 철저한 준비와 지역 역량을 결집한 성과로, 대형 현안 유치, 예산확보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광주·전남 지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대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침복단지) 조성사업은 이같은 지역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총사업비 5조6천억원이 투입될 침복단지 유치를 확정된 대구시는 국장급 2명과 과장급 2명 등 총 31명에 이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치전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했다. 심지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지선정에 입김을 넣었다’는 뒷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권이 유치전에 적극 가세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4·5·6·7면

사업화를 맡겨줄 기개로 애초 노무현 정부가 확정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에 광주설립이 명시돼 있었으나, 새정부 들어 입지가 재검토 되고 있다. 타 지자체가 몰발유치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무려 1년3개월 여 문화전당 건립에 차질을 빚은 옛도청 별관 철거 논란도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협력 체계가 실종된 대표적 사례다. 이건설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광주·전남 지역이 최근 10년간 이렇다할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지역의 내적 역량을 쌓아온 영남권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인다”며 “광주·전남 지역이 뚜렷한 미래비전과 좌표를 수립해 성장동력 확충에 나서지 않는다면 또 다시 지역발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운 한가위 맛있게
추석특집·TV 9~20면 쏙 뽑아주세요
2·3·4일 신문 읽습니다

1(목) 광주·전남 연휴 날씨 차차 흐려져 19/26	2(금) 호리고비 19/25	3(토) 구름 많음 15/23	4(일) 맑음 14/25
--	-----------------------	------------------------	---------------------

사모아 강진... 한국인 3명 사망·실종

남태평양 중부 군도의 하나인 사모아 제도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 상무가 지난달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통해 잠정 집계한 결과, 이번 강진에 따른 쓰나미로 인해 미국령 사모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했다”고 밝혔다. 숨진 사람은 현지 원양어선협회장

인 이인생(62)씨와 신미자(여·46)씨며 신씨의 둘째 딸 우가비(9)양이 실종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남태평양 중부 군도의 하나인 사모아 제도 인근에서 지난달 29일 오전(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8.0의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해 이날 오후 2시 현재(호주동부시각) 최소한 36명이 사망했다고 사모아 및 미국령 사모아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 한울 停e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밤’과 피부의 보습과 균형 상태인 ‘올리’를 구현하기 위한 한울 제품으로 맑과 마늘의 유익성 구현 고객여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밤 스파 SHOP

- 1일 1일 제과
- 한밤 화장품 한울 영문 서비스
- 갈수록&온수계 파시지
- 아모레퍼시픽 방화포만호
- DR. Cashbag 식물기능